

Title	시멘트 통 속의 편지
Author(s)	정, 유리
Citation	多言語翻訳 : 葉山嘉樹 『セメント樽の中の手紙』 . 2013, p. 28-31
Version Type	VoR
URL	https://hdl.handle.net/11094/61325
rights	
Note	

Osaka University Knowledge Archive : OUKA

<https://ir.library.osaka-u.ac.jp/>

Osaka University

시멘트 통^① 속의 편지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

정유리 역

마쓰도 요조(松戸与三)는 시멘트 통에서 시멘트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②. 다른 부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머리털과 코 밑은 시멘트로 젖빛에 뒤덮여 있었다. 그는 콧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 철근 콘크리트처럼 코털을 뺏뺏하게 만든 콘크리트를 긁어내고 싶었지만, 일 분에 10재^③씩 토해내는 콘크리트 믹서 속도에 맞추려면 도저히 손가락을 콧구멍으로 가져갈 틈이 없었다.

그는 콧구멍이 신경에 거슬렸지만 끝내 11시간 - 그 동안 딱 두 번 점심시간과 3시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점심 때는 배가 고파서 다른 한번은 믹서를 청소하느라 잠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코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다 - 동안 코를 청소하지 못했다. 그의 코는 석고 조각상 마냥 굳어진 듯했다.

그가 작업 막판 무렵, 녹초가 된 손으로 옮긴 시멘트 통에서 작은 나무상자가 나왔다.

"뭘지?"하고 그는 잠시 수상쩍게 여겼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삽으로 시멘트 뒷박에 시멘트를 퍼담았다. 그리고 뒷박에서 반죽통으로 시멘트를 붓자마자 또다시 시멘트 통을 비워내기 시작했다.

"근데 잠깐. 시멘트 통에서 상자가 튀어나올 턱이 없잖아."

그는 상자를 주워 작업치마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상자는 가벼웠다.

"가벼운 걸 보아하니 돈 한 푼 안 들어 있는 모양이네."

그는 생각할 짬도 없이 다음 통을 비우고 다음 되를 퍼담아야 했다.

믹서는 이윽고 공회전을 시작했다. 콘크리트 제작이 끝나고 퇴근시간이 되었다.

그는 믹서에 연결된 고무호스 물로 우선 얼굴과 손을 씻었다. 그리고 도시락통을 목에 둘러매고 한 잔 걸치고 저녁 먹을 생각만 하며 그의 간이 주택^④으로 돌아갔다. 발전소는 80 퍼센트 가량 완성되어 있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 우뚝 솟은 에나 산(惠那山)은 새하얗게 눈에 뒤덮여 있었다. 땀에 절은 몸뚱이는 갑자기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는 발치에서는 기소 강(木曾川)이 허영게 거품을 물며 포효하고 있었다.

"첻! 못해먹겠네, 여편네는 또 배때기가 남산만해져 가지곤....." 그는 우글우글한 아이들과 또 요번 추위에 맞춰 태어날 아이와 있는 대로 싸질러 낳는 마누라를 생각하자 맥이 탁 풀려버렸다.

"일당 1엔 90전에서 날마다 50전짜리 쌀을 2홉 먹고 90전으로 옷 해입고 집세 내면 젼장 맞을! 당최 술을 마실 돈이 없잖아!"

그러다 문득 그는 주머니 속에 든 상자가 떠올랐다. 그는 상자에 묻어 있는 시멘트를 바지 엉덩이쪽에 쓱쓱 문질렀다.

상자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런 주제에 옹골지게 못질되어 있었다.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넣었길래⁵, 못질씩이나 치박아놓은 거야"

그는 돌 위에 상자를 냅다 던졌다. 그러나 부숴지지 않았기에 요놈의 세상까지 뱉아 뭉개버릴 기세로 거칠게 짓밟았다.

그가 주운 상자 안에서 누더기에 싸인 종이쪼가리가 나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저는 N시멘트 회사⁶에서 시멘트 자루를 깎는 여공입니다. 제 연인은 파쇄기에 돌을 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아침 큼지막한 돌을 넣을 때에 그 돌과 함께 파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구출하려고 했지만, 물에 빠진 것처럼 돌 밑으로 제 연인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돌과 연인의 몸은 서로를 부서뜨리며 붉고 가느다란 돌이 되어 벨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벨트는 분쇄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강철 탄환과 하나가 되어 잘고 잘게, 격한 소리 속에 저주의 악소리를 지르며 부숴졌습니다. 그리고 연소되어 어엿한 시멘트가 되었습니다.

뼈도, 살도, 혼도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연인은 남김없이 시멘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 작업복 형꼴 쪼가리 뿐입니다. 저는 연인을 넣을 자루를 깎고 있습니다.

제 연인은 시멘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이 편지를 써서 이 통 속에 살짝 넣었습니다.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당신이 노동자라면 저를 가엾게 여기고 답장해 주세요.

이 통 속의 시멘트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 연인은 몇 통의 시멘트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미장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인부입니까.

저는 제 연인이 극장의 복도가 되거나 커다란 저택의 담장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노동자라면 이 시멘트를 그런 곳에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에든 사용해 주세요. 제 연인은 어디에 묻히더라도 그곳에 맞춰 분명 제 할 일을 다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이는 야무진 사람이니까 분명 충분한 역할을 해낼 거예요.

그이는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착실하고 사내다운 이였지요. 아직 젊었습니다. 막 26살이 된 참이었습니다. 그이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대신 시멘트 자루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이는 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전가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이를 보내야 할까요. 그이는 서쪽에도 동쪽에도, 멀리에도 가까이에도 묻혀있는 걸요.

당신이 만일 노동자라면 제게 답장을 보내 주세요. 그 대신 제 연인이 입던 작업복 조각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 편지를 싸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이 형겔 조각에는 돌가루와 그이의 땀이 깃들여 있어요. 그이가 이 형겔 작업복으로 어찌나 굳게 저를 안아 주었던지요.

소원이니까요. 이 시멘트를 사용한 날짜와 그리고 자세한 주소와 어떤 장소에 쓰였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실례가 아니라면 꼭꼭 알려주세요. 당신도 몸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쓰도 요조는 들끓는 듯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문득 느꼈다.

그는 편지 끝에 있는 주소와 이름을 쳐다보며 밥그릇에 따라놓은 술을 단숨에 꿀꺽 들이켰다.

"진탕 취해버리고 싶네. 그리곤 이거고 저거고 싹 다 때려부숴 버리고 싶네"하고 고함질렀다.

"진탕 취해 난동 부려야 되겠어요? 애들은 어찌라구요."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누라의 커다란 뺨속에 든 7번째 아이를 보았다.

(1925년 12월 4일)

<<본 작품의 한국어 번역 사례>>

*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나열한다.

(1) 김정미 역. 『일본대표단편선2』. 고려원, 1996.

(2) 김미숙 역.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 단편소설 Best 15』. 거송미디어, 2005.

(3) 양혜윤 역. 『일본 대표작가 대표소설1』. 세시, 2008.

(4) 양혜윤 역. 『사랑을 위해 죽다』. 세시, 2009.

① 원문: 「セメント樽」

일본 근대에는 시멘트를 넣는 용기로, 처음에는 통이 나중에는 자루가 사용되었다. 1920년대는 통에서 자루로의 이행기에 해당한다.

② 원문: 「松戸与三はセメントあけをやっていた」

마쓰도 요조가 담당한 작업은 시멘트 통에서 시멘트를 꺼낸 다음 모래나 자갈과 섞어 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것이다.

③ 원문: 「才」

재(才) 용적 단위. 한 변이 한 척(尺: 일본의 전통적 길이 단위로 약 30.3cm)인 입방체를 말한다. 따라서 '일 분에 10재씩 토해'낸다는 것은 일 분에 약 27800cm³, 즉 한 변이 약 30.3cm인 입방체 10개분의 시멘트가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④ 원문: 「長屋」

일본의 전통적인 집합주택. 좁고 긴 건물을 벽으로 나누어 여러 명이 생활한다. 근대에는 서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주거인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長屋는 간이하고 조악한 주거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⑤ 원문: 「思わせ振りしやがらあ」

원문을 직역하면 상자가 단단히 못질되어 있어 "의미심장한 기대를 갖게 만드네" 정도가 되겠지만, 직역이 전체 문맥을 흐린다고 판단하여 쓸데없이 열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힐난조의 의미를 담아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넣었길래"라고 의역하였다.

⑥ 원문: 「Nセメント会社」

작자인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는 1921년 나고야(名古屋) 시멘트 회사에 근무할 당시 한 직공이 회전가마를 청소하던 중 집진실에 떨어져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한다. 이 때의 체험이 '시멘트 통 속의 편지'에 투영되어 있다고 일컬어진다.